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잘 보여 줍니다.

찬송을 흔히 세 가지의 힘으로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 나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힘,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화해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 주는 찬송은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의 찬송을 신앙의 길잡이라고 한다면, 내 속으로 들어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찬송은 소망을 향한 길잡이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뻗어가는 힘입니다.

음악이 지니는 이런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히틀러를 위시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음악을 최대한도로 이용했던 이유는 사람을 단합시키는 데 음악 이상의 좋은 매개체를 발견치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찬송이 나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감화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정성을 다 기울여 불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라고 명령했습니다.

‘메시아’ 작곡으로 유명한 헨델은 올겐 연주자로도 탁월했습니다. 한 번은 연주회가 끝났을 때 한 음악가가 격찬하며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연주는 두 다리와 열 손가락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헨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올겐을 연주할 때 내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연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째가는 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자기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인을 감화하는 위대한 성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청소하는 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청소를 하시나요?" 그 질문에 청소부 아주머니는 말합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 즐거울 수밖에요." 아주머니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분노하며 있었던 순간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를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때 감사하며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이 찬송입니다. <집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집을 풀어주셨어요. 나의 두려움은 기도로 변하고 그 집은 사라져요.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성은의 성도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힘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28일(토) 11시에 임직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❷ 소예배실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연심 권사님께서 특별헌금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❸ 10월 중보기도카드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식당봉사 - 5셀 ▶ 다음주 식당봉사 - 2셀

◆ 10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10/10	강북노회 정기회 (철원중앙교회)
10/28	임직감사예배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